

목포,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개최 준비 완료

장애인·비장애인 하나되어 즐기는 화합·희망의 대축제

국내 최대 장애인 스포츠 대축제인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3일 목포시를 주 개최지로 전남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어 즐기는 화합과 희망의 대축제가 될 이번대회를 목포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현재 대회 개최식과 육상경기가 열리는 목포종합경기장과 장애인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배구)의 준비를 마쳤고, 목포다목적체육관(골볼), 목포실내체육관(유도), 목포국제축구센터(축구), 영산호가늌경기장(카누), 옥암임시승마경기장(승마) 등 각 종목별 경기장도 개·보수를 모두 마쳤다. (괄호-목포에서 열리는 경기종목)

특히 반다비체육센터는 2018년 강원도에서 열린 평창 동계 올림픽의 공식 마스코트인 반달 가슴곰의 "반달"과 대회를 기념한다는 뜻의 한자 "비"를 합쳐 만들어진 명칭으로 건립

을 위해 국비 40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시설은연면적 2,330㎡에 지상 2층 규모로 내부에는 수중치료실(길이 25m 소규모 수중운동실)과 가상현실(VR) 스포츠체험관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선수단과 관람객을 위한 손님맞이 준비도 끝났다.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위해 경기장 주변과 주요 시가지 이정표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시내 가로수, 공원녹지, 도심하천, 노후벽화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시내 전역에 가을꽃을 식재하고 특히 경기장 주변 10개소에 꽃밭을 설치해 대회 기간 내내 목포시내 전역이 형형색색 가을꽃으로 물들어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장애인 체전 개·폐회식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대양동 일대 사유지 5필지, 47,537㎡를 수용차 1,700여대 주차 가능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대양산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일부는 대형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또한, 옥암대학부지 일부를 대형버스 200대 주차 가능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 대회 기간 중 선수단 수송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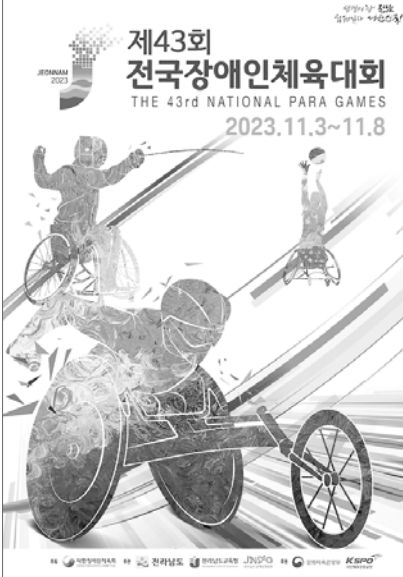
개·폐회식에 관람객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23개동 행정복지센터~목포종합경기장, 임시주차장~목포종합경기장 간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시민들도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에 힘입어 전국장애인체전 준비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2,023명의 시민 응원단을 구성해 우리시에서 열리는 7개 종목의 경기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응원할 계획이다.

또한 711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개·폐회식 및 종목별 경기장 등에 배치되어 행사지원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참가 선수단 및 장애인 관람객 지원을 위해 다양한 편의 대책도 마련



했다. 장애인 선수단이 묵는 숙박업소에 경사로를 입차해 편안하고 쾌적한 숙박을 지원할 예정이며, 목포관광 홍보, 문화재 야행 행사 안내, 셔틀버스 안내 등 다양한 홍보물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무료로 운행하도록 해 장애인 선수와 관람객의 교통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목포=김근호 기자

“해남쌀·고구마·배추·김 맛나게 만나세요”

해남미남축제에 ‘명품 농수특산물 4총사’ 출격

해남군이 자랑하는 명품 농수특산물 4총사가 해남미남축제에 출격 준비를 마쳤다.

해남군은 3~5일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해남미남축제를 개최하는 가운데, 미남(味南)을 대표하는 해남 농수특산물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맛있는 해남’의 진수를 선보인다.

특히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쌀과 배추, 고구마, 김 등 주요 농수산물들이 본격적인 수확시기를 맞아 맛있는 먹거리와 음식으로 변신해 축제장의 관람객들과 만난다.

전국 최대 경지면적과 친환경 인증면적을 보유한 해남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과 명품배추의 대명사 해남배추는 대동음식 파코먼스에서 만날 수 있다. 해남 515개 마을에서 재배한 배추로 김치를 담그는 ‘515 김치비빔’ 행사가 4일 열리며, 5일에는 해남쌀과 해남김, 굴로 만든 떡국을 축제 참가자 전원과

나누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미남해남 떡국나눔’이 진행된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영양간식 ‘해남고구마’는 주전부리관에서 간편식으로 만날 수 있다. 주전부리관은 주민자치회 등 읍면 단체의 주민들이 직접 간식거리를 만들어 판매하게 된다. 고구마고로케, 고구마라떼, 고구마김밥, 김치고구마전 등 고구마를 활용한 핑거푸드를 다채롭게 선보인다.

해남군 대표농수특산물로 만든 맛있는 먹거리는 체험행사를 통해서도 축제장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해남 전통주와 함께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이용한 찰지를 구워먹는 추억의 구이터, 해남쌀 촉감놀이, 배추김치 버무리기 행사, 내품안에 고구마 담기 체험, 배추품은만두 만들기 등 요리체험, 수산물시식행사 등이 열린다.

/해남=김동주 기자

담양군농업인대학 졸업식 딸기수경재배 전문농업인 배출



담양군은 지난달 3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16기 담양군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6회째 이어오고 있는 농업인대학은 담양군 주력 품목인 딸기를 선택,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스마트 영농을 접목한 딸기 수경재배 과정을 운영했다.

농업인대학은 지난 4월 5일 개강하여 10월 24일까지 총 20회, 102시간에 걸쳐 진행했으며, 집합교육 12회, 현장 농가 상담 4회, 농기계 실습 2회, 선진지 견학 2회로 구성했다.

이날 장기간의 교육 참여 및 자치활동에 공로가 많아 농촌진흥청장상을 받은 김성수님은 “그간 배운 내용을 내 농장에 활용해 소득을 높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 담양군의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농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졸업장을 수여한 이병노 군수는 “농업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치 있는 생명산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대학에서 배운 것을 기본 삼아 창의적인 생각으로 담양 딸기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달라”고 말했다.

/담양=조승태 기자

영암,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 모집

영암군이 ‘2024년 제2기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은 외국인주민의 군정 참여 기회 제공 및 한국생활 지원, 선·이주민 소통 강화 등을 위한 제도이다.

영암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 한국어가 가능한 20여 명으로 모니터링단은 구성된다.

이들은 내년 1년 동안 활동하며 ▲외국인주민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및 일상생활 불편 사항 개선 건의 ▲간담회 및 역량 강화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모니터링단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주민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11월 말일까지 영암군 인구정책과에 이주민지원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joyh1220@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영암=김현두 기자

고흥, 군민 맞춤형 버스 노선 개편 주민설명회 개최

2주간 16개 읍면 순회… 노선 개편 홍보·주민 의견수렴

고흥군이 기존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운행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추진 중인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이장·부녀회장 회의 일정에 맞춰 16개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시간선 체계 도입 및 불필요한 노선 통합 등 전반적

인 개편 사항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7월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를 기점으로 8월에는 운·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노선 개편에 대한 주민 의견을 1차 수렴했으며, 9월에는 3개 운수업체와 노선 관련 조정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다 시군과 비교했을 때, 고흥군은

용역 초창기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노선 개편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개편 초안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한,군은 1차 주민설명회 이후 추가적으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운행노선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3개 운수업체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이용자·운영자·관리자가 모두 만족하는 개편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흥=신용원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 24개 읍면동 순회 시정 보고회 마무리

시정 함께한 시민에 감사 인사·순천 미래 비전 제시



순천시는 1일 왕조1동을 끝으로 10일간 24개 읍면동에서 진행된 ‘2023년 시정 보고회’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현장 건의사항만 접수 받던 작년까지의 시민과의 대화 형식을 벗어나, 사전에 읍면동에서 접수한 건의사항 118건에 대해 먼저 상세히 답변하고 나머지 시간은 시정 보고로 진행했다.

보고의 주 내용은 올해 현안이었던 경전선 노선 우회,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함께해 이루어 낸 성공적인 결과에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어떻게 화답했는지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는 시민과 공직자, 시장이 합심해 이루어 낸 것임을 강조하고 제 역할을 다해 주신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980만 관람객을 모으며 정원열풍을 일으킨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에너지·메이선 사업, 현안 해결 등 더 높은 곳을 향한 순천의 비전을 제시해 참석한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다시 한번 순천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해 줄 것을 부탁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직접 시정 현황을 설명한 노관규 시장의 쉬운 단어 사용과 친근하고 적절한 비유로 복잡한 시정을 쉽게 이해하고, 딱딱할 줄 알았던 보고회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시민 다수의 의견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시를 믿고 시정에 동참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시정 보고회를 통해 시민들께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내셨는지, 그로 인해 순천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하셨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도 약할 순천에도 지금처럼 시민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순천=조준희 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 사전 준비 당부

안전한 행사 위한 사전점검 등 철저한 대비 지시

구례군이 오는 4일 개최하는 제47회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를 위해 적극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

김순호 군수는 30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의 안전한 추진을 위한 사전점검 등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꼼꼼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고, 이어서 관광객들을 위한

공중화장실 환경 정비 철저, 진행 중인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 철저 등 적극적인 군정 수행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오는 3일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 점검표에 따라 가스, 전기, 소방, 교통·질서, 시설별도 관리자 임의하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례군은 축제 기간 동안 주행사장(연곡사 주차장) 운영본부에서 종합상황실, 경찰, 소방, 의료

총 4개의 부스로 안전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장 및 공연행사 안전 관리 상황을 유지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 확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구례경찰서, 토지면청년회 등의 협조를 받아 행사장 및 도로변 주차 차량을 통제하고 질서 유지관리에 나선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모두 축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보성사랑상품권 카드형 할인 중단

예산 소진 판매 중단… 지류형은 10% 할인 유지

보성군은 지난달 31일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이 예산 소진에 따라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류형 보성사랑상품권의 경우 계속해서 10% 할인 중으로 가까운 관내 은행에서 구매 후 사용이 가능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카드형 상품권 10% 할인은 종료되지만, 지류형 상품권은 계속해서 10% 할인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위촉된 소비진작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힘이 될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사랑상품권’ 지류형은 2종류(1만 원권, 5만 원권)로 개인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연 840만 원)으로 현재까지 212억 원을 발행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쓰고있다.

/보성=장국호 기자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접수

16일까지 행정 위법·부당사항·예산 낭비 사례 등

광양시의회는 1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민 의견을 접수받는다.

의견접수 대상은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시정 주요 시책·사업 개선 사항, 기타 시민 생활 불편 사례 등으로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제출 방법은 시의회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toldorask@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자유게시판) 등이며, 그 외 사항은 (061-797-2515)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익명에 의한 제보는 제외된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광양시 행정기구와 12개 읍면동, 민간 수탁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서영배 의장은 “내실있고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제보된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준희 기자

‘제48회 진도군민의 날 기념식’ 개최

전야제 축하의 밤·군민 체육대회 등 화합 다져



진도군이 1일 진도공설운동장에서 ‘제48회 진도군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48회 군민의 날은 군민 화합을 위한 지난 31일 축하의 밤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에는 군민 체육대회와 기념행사 등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장영우 진도군의회 의장 등 관내 각급 기관·사회단체장을 비롯해 윤재갑 국회의원, 이권재 오산시장과 향우, 군민 등 2천여명이 진도군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기념식은 군민현장 낭독을 시작으로 ▲각종 시상 ▲기념사와 축사 ▲읍면대항 화합행사 ▲축하공연 등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전날 열린 축하의 밤 행사에 진도출신 가수 송가인과 김다현, 요요미, 나태주 등 유명 인기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열기를 한껏 뜨겁게 달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군민의 화합과 결속으로 군민이 주인인 살기 좋은 진도를 만들기 위해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